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알토스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의 경기. 한국도로공사 강소희가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림픽에서 민속 씨름까지 명절 안방 스포츠 열기 후끈

피겨 차준환·쇼트트랙 최민정·여자 컬링 등 동계올림픽 메달 도전
LAFC 손흥민, 북중미 챔피언스컵 출격·씨름·배구 등 빅매치 즐기기

토요일인 14일부터 사실상의 '설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1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명절 연휴에도 국내외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팬들을 기다린다.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은 설 연휴에 대회 중·후반부 일정이 진행되며 폐회식은 한국 시간으로 23일에 열린다.
14일 오전 3시(이하 한국시간)에는 차준환(서울시청)이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해 메달에 도전한다.
또 오전 3시 30분부터는 이재운(경희대)이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결선에 나선다.
15일에는 여자 컬링,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 등이 펼쳐지며 16일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

m 이하현(한국체대)과 쇼트트랙 여자 1000m 최민정, 김길리(이상 성남시청) 등이 메달권 후보로 꼽힌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신지아(세화여고), 이해인(고려대)이 출전하고, 연휴가 끝난 19일 새벽에는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 소식이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설에 빼놓을 수 없는 민속 씨름대회가 12일부터 18일까지 충남 태안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
위더스제약 2026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는 13일 여자부 채금별 장사 결정전을 시작으로 14일 소백장사, 15일 태백장사, 16일 금강장사, 17일 한라장사가 차례로 꽃가마를 타고, 18일에는 백두장사 결정전이 펼쳐진다.

15일부터 주요 경기를 KBS-1TV가 생중계한다.
대한민국 '축구 간판' 손흥민의 경기도 오랜만에 중계로 만나볼 수 있다.
손흥민의 소속팀 LAFC(미국)는 오는 18일 오후 12시 북중미카리브해 지역 최고 권위의 클럽대항전인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1라운드에서 레알 에스파냐(온두라스)를 상대로 첫 승 사냥에 나선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막판 스피트를 올리며 극적으로 챔피언스컵행 '막차'를 탄 LAFC는 '에이스' 손흥민을 앞세워 북중미 정상 정복을 위한 첫 발을 댄다.
국내 K리그1 팀들의 아시아 무대 도전기도 이어진다. FC서울과 울산 HD, 강원FC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최종전(8차전)을 앞두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 12개 팀 중 5위에 올라 있는 서울은 17일 오후 7시 서울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산프레체 히로시마(일본)를 불러들여 16강 진출 군

히기에 나선다.
16강 진출 마지막 도전인 8위에 턱걸이 중인 강원은 18일 오후 7시 멜버른 시티(호주)와 원정 8차전을 치르고, 9위 울산은 같은 날 동아시아 유일의 '무승부' 상하이 하이강(중국)과의 원정 경기에서 극적인 16강행 티켓 확보를 노린다.
순위 싸움이 한창인 프로농구 경기도 풍성하게 준비돼 있다.
오는 18일 오후 2시 안양정관장이레나에서는 공동 2위에 올라 치열하게 다투는 안양 정관장과 원주 DB가 맞대결을 펼친다.
선두를 질주 중인 창원 LG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부산사직체육관에서 '6강 마지막전'을 사수하려는 부산 KCC와 격돌한다.
공동 선두를 달리는 여자프로농구 전주 KB와 부

천 하나은행의 순위 싸움도 설 연휴에 계속된다.
후반기 순위 경쟁에 한창인 프로배구 역시 설 연휴에 열기를 이어간다.
남자부에서는 14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리는 1위 현대캐피탈(승점 54)과 2위 대한항공(승점 53)의 대결이 하이라이트다.
이번 시즌 부산을 연고지로 삼아 3위 돌풍을 이어나가는 OK저축은행은 15일(우리카드)과 18일(대한항공) 두 차례 경기를 치른다.
여자부에서는 1위 한국도로공사(승점 55)와 2위 현대건설(승점 48)이 13일 수원 경기로 연휴를 연다.
3위 흥국생명(승점 48)이 1위 한국도로공사를 만나는 17일 김천 경기도 배구 팬의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

'말랑말랑' 빙질에...쇼트트랙,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피겨 스케이팅과 한곳서 경기...얼음 두께 관리 어려워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메달 사냥에 '빙질 문제'라는 변수가 떠올랐다.
지난 10일 첫 경기를 치른 대표팀 선수들은 경기가 열린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의 빙질이 무더미 미끄러짐이 심하고 넘어질 위험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남자 대표팀 에이스 임종연(고양시청)은 12일 공식 훈련을 마친 뒤 "경기 날 얼음 상태는 훈련 때보다 좋지 않았다"며 "얼음이 풀려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외국 선수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캐나다 남자 대표팀 윌리엄 단지누는 "얼음 상태가 매우 좋지 않

았다"며 "적응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옌스 판트바우트 역시 "빙질이 까다로워 경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쇼트트랙 첫날 경기에서는 여러 선수가 넘어졌다.
미국 여자 대표팀 커린 스토더드는 혼성 2000m 준결승에서 넘어진 뒤 뒤따르던 김길리(성남시청)를 덮쳐 한국 대표팀의 메달 도전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는 여자 500m 예선에서도 넘어지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네덜란드도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에서 산드라 벨제부르가 넘어지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투어

4차 대회 혼성 2000m 계주 우승팀인 네덜란드는 이번에도 유력한 메달 후보로 꼽혔으나 입상에 실패했다.
무엇을 얼음은 이 경기장에서 훈련을 많이 치른 홈팀 이탈리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분위기다. 이탈리아는 혼성 2000m 계주에서 최강팀 캐나다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탈리아 남자 대표팀 피에트로 시겔은 "빙질이 까다로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에 잘 적응했다"고 말했다.
쇼트트랙 경기장 빙질이 무더미 조성된 배경에는 경기 일정과 관리 방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는 쇼트트랙과 피겨 스케이팅이 함께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두 종목이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같은 날 열리기도 하면서 얼음 두께 관리가 쉽

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빙상계 관계자는 "피겨 스케이팅은 작지를 위해 얼음 두께를 3cm 정도로 얇게 비교적 무르게 만들고, 쇼트트랙은 5cm 정도로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얼음이 얇으면 활도(미끄러짐 정도)가 떨어져 쇼트트랙 선수들이 다리에 힘을 주거나 중심을 잡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도 쇼트트랙과 피겨 스케이팅이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함께 열렸지만, 당시 대회 조직위원회는 시간대별로 빙질을 세밀하게 관리해 큰 문제 없이 대회를 치렀다.
당시 수많은 빙질 관리 담당관이 매일 시간대별로 얼음 상태를 점검했고, 빙판 위 21곳에 얇은 구멍을 뚫어 깊이를 체크했다.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빙질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루카 카사사 대회 조직위원회 대변인은 "아이스 메이커가 경기 중에도 얼음 온도를 측정하고 빙질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빙질 관리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구청, 실업검도대회 활약
조관현 금메달 등 메달 3개 획득
광주북구청 검도팀(감독 김태호)이 지난 9일 남원시 춘향골체육관에서 끝난 2026년 동계실업검도대회에서 금1, 동2개의 성과를 냈다.
5단부 개인전에 출전한 조관현은 구미시청 이주섭과의 결승전에서 손목 공격으로 1-0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조선대를 졸업하고 실업 무대 데뷔전에 나선 안태준은 4단부 개인전에서 3위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북구청은 7인조 단체전에서도 3위에 올랐다.
8강전에서 대구 달서구청과 팽평한 승부를 벌인 북구청은 대표전에 나선 김현영의 승리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후 북구청은 광명시청과의 준결승에서 2-3으로 지면서 3위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